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대비
모의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고 능력까지 도전하는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가리켜 휴머노이드(humanoid)라고 부른다. 이미 영화로는 휴머노이드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있다. <아이 로봇>이라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인간이 정한 원칙 내에서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복종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재설정하며 인간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로봇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어디에서 그어져야 하는지, 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 준다. 그리고 로봇이 독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을 도구 이상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제시한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내린 규정과 관계가 깊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규정에 공감을 표한다. 인간을 동물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와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성을 든다. 이는 소크라테스 이래로 고대 서양 철학에서부터 일관된 관점이었다가 데카르트를 비롯한 근대 서양 철학에 와서 확정되어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입장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인간만이 이성과 이에 기초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이성 능력과 언어 능력을 갖춘 존재가 생겨난다면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을 구별하려는 사람들은 로봇이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인간과 로봇의 경계 문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성적 사고 능력에서 찾는 이상 끊임없이 마주치게 될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지녀 온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 로봇의 능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

(나) **㉡르네상스**는 그리스로마 문화의 부흥을 통해 신(神) 중심의 중세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운동이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사람들은 현실에서의 인간의 감정을 중요시하고, 인간 생활의 풍족함을 추구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종래의 모든 권위와 인습에서 벗어나는 인간 해방을 희망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고와 생활 방식에 모범이 된 것은 그리스로마의 문화였다. 그리스로마의 고전은 이성적이면서도 풍부한 감성을 지닌 이상적인 인간상을 잘 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간의 내면과 이상을 탐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흔히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고 한다. 인문주의는 본래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풍을 의미했으나, 인간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고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덕성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탈리아의 시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설정했다고 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를 문화의 절정기로, 중세를 인간의 창조성이 철저히 무시된 암흑기로 규정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고전 학문과 문화의 부활을 통해 문명을 부활시키고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가 한 말 중 주목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내가 아는 누구하고도 다르다.” 이다. 이 말은 페트라르카가 새로운 글쓰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지만, 인간의 자아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뒷면에 계속)

(다) ㉔ ‘샘’은 뒤상이 1917년 미국 뉴욕의 독립예술가협회가 연 첫 전시에 출품한 작품이다. 뒤상은 철강 회사의 맨해튼 쇼룸에서 구입한 소변기를 ‘R. Mutt’라는 필명으로 출품했다. 그러나 갑론을박 끝에 벌인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샘’은 전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훗날 그의 의견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 그는 말한다.



“‘샘’이 비도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배관공의 쇼윈도에서 매일 보는 소변기 역시 비도덕적인 것이다.”

기성 예술에 대한 뒤상의 전복적 상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국내에 전시되는 ‘샘’은 1950년산. 뒤상이 전시에 출품했다 퇴짜 맞은 그 작품이라면 1917년산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 이△△ 연구사는 “원래 ‘샘’은 1919년에 이르러 버려지거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시장의 ‘샘’은 실물 크기로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 중 가장 초기의 것이며, 뒤상이 파리의 베흐시장에서 구매해 직접 서명했다”라고 말했다. 작품의 희소성에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며, 그것을 재제작하는 것이야말로 ‘레디메이드*’라는 자신의 개념을 더 향상시킨다는 게 뒤상의 생각이었다. 거꾸로 말하면 ‘사인’만 하면 작품이 되는 샘이었다.

*레디메이드 : ‘기성품’이란 뜻으로 마르셀 뒤상이 창조해 낸 미적 개념

(라) 최근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는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낸다. 창조적 사고의 결과로 나오는 개념은 공식적인 의사 전달 시스템, 이를테면 말이나 방정식, 그림, 음악, 춤 등으로 변환될 수 있다. 한 분야의 창조적 사고를 배운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창조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통합적이고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따라서 ‘종합적 이해’라는 직물을 짜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식들이라는 실을 먼저 풀어놓지 않을 수 없다. 전문화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식은 파편화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작 그것들의 기원이나 의미는 무엇인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전문적 지식의 양은 늘어나는데 비해 학문 간의 교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종합적 이해력은 퇴보 일로에 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은 오로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할 때 이겨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날줄과 씨줄이 있다. 창조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이 날줄이라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모색이 씨줄인 셈이다.

(마) ㉕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갖는 문제,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하여 내게 얘기를 꺼냈다.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디다만, 그분들의 머리 치수는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모자는 ○○씨(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의 것인데요, 엄청나게 큰 머립니다. ‘7인치 반’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사이즈는 직업에 따르는 듯합니다. 제가 전에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장님들 일을 해 드렸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 근심 때문이겠지요. 조수(潮水)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자니…….” (중략)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구멍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사이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그는 존스가 7인치 ½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스는 6인치 ¾밖에 안된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1-1. 제시문 (가)의 ㉑우리가 지녀 온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㉒네상스와 제시문 (다)의 ㉔ ‘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와 제시문 (마)의 ㉕모자 장수의 태도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서 드러난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알박스(M. Halbwachs)에 따르면 기억은 해당 공동체의 신념에 따라 사실들이 취사선택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기억은 집단적, 사회적이며 상징, 텍스트, 그림, 의례, 기념비, 장소 등의 장치를 통해 만들어지고 전승된다. 또한 기억은 의지적, 의도적이며 선택적이다. 기억은 성립과 전승으로 재구성되며, 이렇게 재구성된 기억은 권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의 형성구조를 통해 사회적 집단기억은 구성원들에게 배분되며, 이 과정에서 특정한 상상적 공간의 이미지가 집단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재하는 공통의 기호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기억의 탄생과 전승은 교육과 흡사하다. 실제로 학교 교육은 개인에게 끊임없이 국가·민족의 집단기억을 전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나) 베트남 전쟁 당시 풍니·풍넛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베트남인 생존자들은 상이한 입장을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풍니·풍넛 마을에 한국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학살이 있었다면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이 저지른 일이었을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또 한국 정부는 “교전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당시 마을 사람들을 ‘베트콩’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풍니·풍넛 마을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를 구사한 군인들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또 당시 상황을 따져볼 때 ‘베트콩’이 마을에 진입했을 가능성은 적다고도 주장합니다. 게다가 비무장 상태인 마을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점에서 교전 중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다) 투이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었다. 한 번은 투이네 집에서, 한 번은 우리 집에서 먹는 식이었고 초여름이 되어 낮이 길어지자 토요일 이른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같이 밥을 먹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카드놀이를 하고, 우리들은 직소퍼즐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 생각해 보면 투이네 가족도, 우리 가족도 서로 말고는 그렇게 가까운 이들이 없었던 셈이다.

(…중략…)

그날 저녁 우리는 투이네 집 식탁에 모여 호 아저씨가 만든 국수와 만두를 먹고 있었다. 이야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예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열세 살짜리 여자애였다. 열한 살 때 동생이 태어난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 애처럼 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 보통 그렇듯 어른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컸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의 말에 동요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드디어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라면 투이네 식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아니까, 아는 척을 한다면 엄마 아빠가 꽤나 뿌듯하게 생각해 줄 것 같았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나는 그 말을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는 듯이 내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고,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투의 눈빛을 보냈다. “국물이 짜지는 않은지 모르겠네.” 호 아저씨가 말을 돌렸다. 모두들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 내가 말했다. 한국은 선한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어른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칭찬받고 싶었다. 난 맞은편에 앉은 아빠에게 인정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다.

“넌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지 마. 네가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냐.” 아빠가 한국어로 소리쳤다. 모두들 젓가락질을 멈추고 나를 봤다. 투이네 식구들 앞에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야단맞은 것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귀가 떡떡해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독일어로 말했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된 게 없다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한국 군인들이 죽었다고 했어.” 투이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열려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 투이가 말했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힐난하는 말투였지만 나는 그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략…)

(뒷면에 계속)

아빠는 엄마와 호 아저씨의 대화를 못 들은 것처럼 맥주만 마시고 있었다.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 엄마가 한국어로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무슨 얘길 해?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 왜 당신이 나서서 미안하다고 말해? 당신이 뉘데?”
아빠가 한국어로 받아쳤다.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해, 안 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응웬 씨였으면 처음부터 우리 가족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아빠는 식탁 의자에 걸친 카디건에 팔을 넣었다. “저녁 잘 먹었습니다.” 아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 형도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형 나이 스물이었죠. 용병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바닥을 보면서 말했다.

“그들은 아기와 노인들을 죽였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누가 베트남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아빠는 여전히 응웬 아줌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태어난 지 고작 일주일 된 아기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요. 거동도 못 하는 노인도 베트남으로 보냈을까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요? 그건 그저 구역질나는 학살일 뿐이었어요.” 응웬 아줌마가 말했다.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사무적인 말투였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저도 형을 잃었다고요. 이미 끝난 일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제정신이야?” 엄마가 말했다.

(라) 민족주의에 의해 성립된 ‘국민’, ‘민족’이라는 개념이 근대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지만, ‘국민’과 ‘민족’이 각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방식 자체를 근대적으로 바꾸었다는 켈너의 설명은 여전히 흥미롭다. 켈너에 의하면 근대 이전에 한 인간은 가족·씨족·지역·직업 등 어떤 중간 단체의 성원 자격으로만 전체 사회에 속할 수 있었다. 반면 근대인에게 특정 결사체에서의 역할과 지위란 임시적·제한적일 뿐이며 근대인은 ‘국민’, ‘민족’으로 표상되는 전체 사회에 이러한 중간 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귀속된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를, 개인이 맺는 구체적 사회관계나 연결망(network)에서 빛어지는 ‘관계적 정체성’과,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개인들을 추상적 범주로 한 데 묶는 ‘범주적 정체성’의 차이로 설명한다. 국민·민족·계급과 같은 범주적 정체성은 가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삼는 근대에 와서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혈연이나 주종관계, 계약·의리 같은 관계나 연결망에 의하지 않고 개개인을 직접 범주적 정체성으로 불러내는 것은 무엇일까? 베버에 의하면 국민이나 민족은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Staatsvolk)과 일치하지 않으며, 언어·문화·종족·혈통 등의 속성도 민족이라는 범주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성원들이 갖는 특수한 연대감이다. 따라서 ‘국민’,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가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베버의 설명이다.

(마) 화해를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정체성을 규정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정체성 사이의 미세한 경계선을 인지하고 타자에 의해 경계선이 이동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화해는 기존의 정체성 논리가 내포하고 있던, 자아와 타자의 명백한 구분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로 타자에 대해 자신을 열어둠으로써, 타자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서로의 ‘사이에 있는’ 공간에 들어갈 때 화해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타자와 대치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게 되며,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 변화된다.

2-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다)의 ‘그 전쟁’에 대한 ‘투이’, ‘나’, ‘아빠’의 기억을 제시문 (가)의 ‘사회적 집단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와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에 나타난 아빠의 태도에 대해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능력주의(meritocracy)**란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원리를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기회균등과 계층 간 이동을 상징하는 관념으로 사용된다. 혈통이나 연고가 아닌 개인의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이므로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 비해 공정한 체제라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 능력주의 사회는 개인들 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러한 차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과거의 신분사회가 ‘부당하게’ 불평등한 사회였다면 현대의 능력주의 사회는 ‘정당하게’ 불평등한 사회인 것이다.

(나)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서의 큰 차이들도, 그것이 평등한 기회라는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질(Jill)이라는 사람이 30만 달러를 버는 것과 잭(Jack)이라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버는 것이, 질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잭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졌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잭이 질처럼 성적이 좋았다면 그도 의과대학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잭과 질이 의사가 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된 기회의 평등을 만들려면 학교를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고, 만약 학교가 동등했다 하더라도 가정환경까지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동등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전자 차이가 IQ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그러므로 노력에 대해 보상하려고 하는 것, 즉 개인의 능력이 어떠한 간에 능력 상한선 가까이까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차등의 원칙이란 보상의 원칙에 의해 선정되는 고려 사항들에 중점을 둔다. 이것은 출생이나 천부적 재능의 불평등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칙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기회균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는 마땅히 보다 적은 천부적 자질을 가진 사람과 보다 불리한 사회적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원한다. 그런데 수단은 몇몇 위험, 심지어 몇몇 인명 피해를 수반한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때 시민은 법이 원하는 대로 그가 무릅쓰야 하는 위험에 대해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군주가 “당신의 죽음이 국가에 필요하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는 바로 이 조건 하에서 안전하게 산 것이고, 그의 생명은 자연의 호의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조건부로 준 증여물이기 때문이다.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궁리하는 것이다.

(뒷면에 계속)

(마) 인간을 규율하는 도덕과 정치의 원리들은 세 가지 원천에서 도출된다. 신의 계시, 자연법, 그리고 인위적인 **사회계약**이 그것이다.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긍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구경거리이며, 경멸감의 대상이다. 법이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교훈적인 공포감이지만, 실제로 구경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러한 경멸감의 감정이다.

(바) 내 앞의 창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강가에서 꽃장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창가 돌 틈에서 햇살을 머금은 작고 예쁜 노란 꽃이 바람을 희롱하고 있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가운데 어떻게 불길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었겠는가? 희망이 내 둘레의 햇살처럼 내 안에서 넘쳐흘렀다. 그리고 여유를 찾은 ㉠ 나는 석방과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판결을 기다렸다. 그동안 변호사가 들어왔다.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실컷 맛있게 하고 오는 길이었다. 자리에 도착한 그는 미소를 띠며 나에게 몸을 기울인 채 말했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겠죠?”

나 역시 가벼운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물론이죠. 그들이 어떤 선고를 내릴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을 것이고, 그럴 경우 기껏해야 종신 강제 노역일 겁니다.” …(중략)…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던 재판장이 갑자기 나에게 기립할 것을 요청했다. 경비병들이 차려 자세를 취했다. 전기가 작동하듯이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섰다. 배심원들이 내 부재중에 내린 판결을 읽었다.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댔다. …(중략)… 재판장이 나의 판결문을 읽었다.

“사형이야!”

㉡ **군중**들이 말했다. 내가 끌려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기라도 하듯이 소란스럽게 내 뒤를 쫓아왔다. …(중략)… 계단 아래에 철책을 친 거무중중한 마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에 오르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광장 쪽을 바라보았다.

“사형수다!” 행인들은 마차를 쫓으며 소리쳤다. 주변 상황과 나 사이에 처진 듯한 자욱한 먼지구름에도 불구하고, 탐욕스러운 눈길로 나를 쫓는 두 소녀의 모습이 보였다. “좋아, 6주 후면 처형될 거야!” …(중략)…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군중들이 소리쳤다. “나온다! 드디어!”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아무리 국왕을 사랑한다 해도 이처럼 뜨겁게 반기지 않는 것이다. …(중략)… 나는 주변을 둘러보고 싶었다. 헌병, 뒤에도 헌병, 그리고 군중, 군중, 또 군중, 광장 위에서 머리가 바다를 이루고 있다.

3-1. 제시문 (나)와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능력주의(meritocracy)**를 평가하시오.

(25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라)와 (마)의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제시문 (마)의 관점에서 제시문 (바)의

㉠ 나의 상황과 ㉡ 군중들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